

## 음유시인 시절에 부치는 연서

《말과 음악, 그리고 그 숨결》 펴낸 서우석씨

없는 사람들이 고아원·양로원 뿐 아니라 곳곳에서 연주를 들려주는 겁니다.”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하는 만큼 지금의 우리 음악에도 관심이 많다. 박인수 교수가 대중가요를 불러 떠들썩했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일 뿐이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였고, 노래방의 출현을 반주기계의 개발 정도로 생각하고 좀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사람들이 좀더 음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비평을 위한 지면은 거의 없고, 주어진다 해도 내용은 수박겉핥기로 흘러갑니다.”

지면이 허락한다면 일관된 주제 아래 깊이있는 음악비평을 쓰고 싶다. 여러 매체에 발표했던 다양한 글을 모은 이번 책이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각종 소비재 대신 음악을 입고 먹는 사회가 되길 꿈꾸는 낭만주의자 서교수는 올 연말까지 초보자도 무난히 읽을 수 있는 음악 입문서를 하나 써볼 생각이다.

— 이현주 기자

이주 옛날에는 음유시인들이 귀족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시를 읊었다. 그때는 시와 음악이, 또 말과 음악이 같등하지 않았다. 서우석 교수(58, 서울대 음대)가 펴낸 《말과 음악, 그 숨결》(문학과지성사)은 그 시절에 부치는 연애편지랄 수 있다.

“언어와 음악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언어가 음소, 단어, 문법 등으로 구성되어 논리적이려면 음악 역시 음계와 박자, 질서화된 음으로 구조화되어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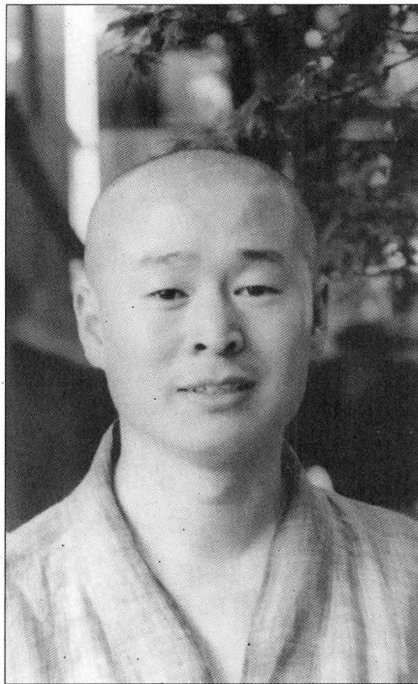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들은 ‘소리’로 되어 있다. 계몽주의 이래로 세상의 모든 것은 계량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과학 바깥에 놓여 있다. 서교수가 책 속에서 환기시키는 사실은 말과 음악이 과학 밖에서 숨결을 갖는다는 점이다.

소리의 신비는 인간의 몸 밖에서 단지 공기의 진동에 지나지 않던 것이 몸 속에서 감각의 질을 갖는다는 데 있다. 피아노의 A음은 단 1초에 손을 440번 흔들어 만들 수 있는 소리다.

“음유시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시가 활자가 된 이상 탈신비화하지 않은 소리로 만들어진 것은 음악뿐이지요. 끝이 없다는 인간의 욕망도 음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사회라 일컫는 현대사회에서 음악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서교수는 자신에게 힘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른이 된 후에도 몇 번을 부릅시다 하면 모두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통일된 청소년 노래집을 만들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음악대학을 나왔지만 연주할 기회가



## 정신대 할머니 모여사는 '나눔의 집' 이야기

《나, 내일 데모 간데이》 펴낸 혜진 스님

일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아울러 89년 출가한 혜진스님이 92년 나눔의 집을 문을 열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의 프로필,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 등이 함께 수록돼 나눔의 집과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언제까지 할머니들이 자신의 슬프고 아픈 과거의 기억에 얽매어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당한 고통을 개인의 회생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역사적인 삶으로 받아들이고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합니다.”

나눔의 집은 1000명 남짓한 후원회원의 회비와 조계종 총무원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데, 내년이면 종단층의 재정지원이 끝나게 돼 스님과 할머니들은 걱정이 많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개관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을 더한다. 재정난을 걱정하던 할머니와 스님의 대화. “스님 우짜지예” “할머니, 아이 해브 노 아이디어” “스님은 해브 예스!”

할머니들의 스님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혜진스님은 오늘도 바쁘다.

— 박남정 기자

‘나눔의 집’은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경험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다. 지난 92년 서교동의 한 한옥에서 출발한 나눔의 집은 여여곡절 끝에 95년 경기도 퇴촌면 가셋골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해 현재 아홉분의 할머니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나눔의 집 살림을 떠맡아 할머니들의 친구로, 손자로, 보호자로 일인 다역을 해내고 있는 원장 혜진 스님(33)이 최근, 나눔의 집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으로 엮었다. 《나, 내일 데모 간데이》(대원사)가 그것. 이 책에는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던 공통의 경험 외에는 살아온 이력도 개성도 제각각인 할머니들과, 할머니들의 표현대로라면 장가도 못가보고 아이도 못낳아본 ‘조다’ 같은 스님이 함께 살면서 빚어낸 각종 사건과 사연들이 담겨 있다.

“정신대 할머니들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겁고 엄숙하고 슬프다는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눔의 집에서 지내는 할머니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공개함으로써 할머니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그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예를 시간 설사 때문에 목탁치기를 중단한 스님, 스님의 목탁소리에 방귀소리로 박자를 맞추는 할머니, 독일에서 온 손님이 ‘쿠편 탁’ 하고 인사하니 할머니들이 일제히 ‘쿠편탁’ 했다는 이야기. 이 책에는 할머니들의 삶을 대하는 능청스럽고 유머러스한 모습과 잠잠할 만하면 발동하는 스님의 장난기가 어우러진, 나눔의 집





## 문학에 담긴 역사의 현장

《역사와 만나는 문학기행》 펴낸 최재봉씨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평가는 접어두고라도 문학내에서 친일문학에 대한 반성과 평가작업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재봉씨의 입장이다.

시리즈를 연재하는 동안, 문인들과 동행하며 얻은 지혜의 구슬과 지교의 즐거움은 큰 기쁨이었다. 작품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키우고 관련 비평서나 연구서들을 찾아 읽을 기회도 얻었고,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는 기쁨으로 그의 고단한 취재여행은 행복했다. 이 여정에서 그가 새삼 느낀 것은 한국문학이 '경험의 풍요와 표현의 빈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중군위안부'나 '한국전쟁' 80년 광주' 등 한국역사의 중요한 국면들이 미답의 황야로 내버려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현장의 생생함과 역사의식이 담긴 작품을 쓰는 것은 이 시대 작가들이 포기해서는 안될 몫”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역사와 만나는 문학기행》은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원고다. 북쪽의 역사 현장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문학역사기행을 위해서 북으로 문학기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최재봉씨는 소망한다.

— 마정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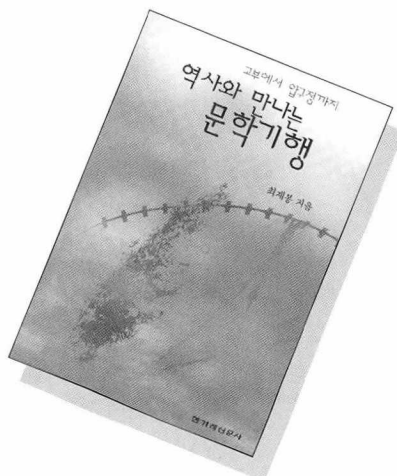
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 최재봉씨(36)는 지난해 행복한 취재 일정을 보냈다. 문학작품의 무대를 찾아 우리 최근세사를 더듬어 보는 기획취재를 맡아 전국의 역사현장을 찾아나선 것. 그 기록이 《역사와 만나는 문학기행》(한겨레신문사)이라는 책으로 묶였다.

“문학은 세상과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현실을 떠난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의 여행은 안도현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에서 시작하여 유하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동학농민전쟁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근대사 1세기를 더듬어온다. 근대사의 격랑을 다룬 《토지》, 압태도 조각쟁이를 담은 《압태도》, 4·3 제주도 항쟁을 다룬 《순이삼촌》, 4·19 혁명을 노래한 김수영의 시, 양공주의 그늘진 삶을 그린 《아메리카》, 노동자 착취를 정면에서 문제제기한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80년 5월을 다룬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등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변화의 국면을 다루면서 문학적인 성취를 이룬 작품 43편의 현장을 찾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정주 시인의 작품기행이다. '가미가제'를 찬미한 그의 친일시 <마쓰이 오장 송가>를 소개하고 우리 친일문학의 실상을 다뤘다.

“우리 근현대문학을 논할 때 친일문학은 제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당의 작품을 다루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선뜻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당대의 대다수 문필가들이 친일문학에 나섰음은



## 국학자료원 자료안내

### 文學의 단행본

- 국역 소문쇄록 정송수/₩15,000
- 한국어의 김탄문 노대규/₩12,000
- 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 이승원/₩10,000
- 20세기 한국시인론 이승원/₩13,000
- 문학 생태학/채수영/₩12,000
- 서정주 시 연구 유근용/₩11,000
- 한국 현대희곡사 유민영/₩25,000
- 언어의 미학 황계정/₩20,000
- 한국현대희곡연구 손화숙/₩13,000
- 한국현대문학이론과지향 문학과학연구/₩15,000
- 김현구 시 연구 김산태/₩15,000
- 침사해 작품, 자료집 락 근/₩10,000
-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김광길·심원섭/₩9,000
- 한국중견작가연구 정신재/₩9,000
- 보통 사람이 쓴 무속이야기 손숙희/₩7,000
- 시조문학 산고 이동철/₩17,000
- 문학의 비평적 대화와 해석 임명진/₩13,000
- 문학과 현실의 변증법 한수영/₩18,000
- 근대문학연구의반성과 새로운 모색/문학사와비평회/₩10,000
- 임객정의 서시와 페로디 한창영/₩12,000
- 논문직성의 이론과 실제 송현호/₩10,000
- 여성의 눈으로 읽는 문화 송명희외/₩9,000
- 작가연구 3. 김용익 강진호외/₩7,000
- 백 석 고형진/₩8,000
- 이태준 / 이기인/₩8,000
- 정지용/ 김은자/₩8,000
- 홍명희/ 채진홍/₩7,000
- 해방전 민주지역의 우리 시인들과 시문학/ 조규익/₩17,000
- 1950년대 남북한 시인연구 한국문학연구회편/₩17,000
- 한국 현역 작가연구 정신재/₩9,000
- 화해의 시학 김송배/₩16,000
- 해방기 소설연구 이병순/₩15,000
- 소설과 현장 비평 김윤식/₩7,000
- 시·소설·비평 그리고 현실 정현기/₩8,000
- 한국 문학의 저변 조남현/₩10,000

- 변혁기의 한국 현대시 오세영/₩9,000
- 비평의 쟁점과 문학의 안팎 윤병로/₩9,000
- 한국현대작가의 문제작평설 윤병로/₩9,000
- 신문정신의 탐색 오양호/₩10,000
- 북한문학사전 이명재/₩50,000
- 영랑 김윤식 연구 허형만/₩10,000
- 한국시의 구도와 비평 박명용/₩13,000
- 한국패러디소설연구 김현실외/₩7,000
- 현대시학/ 윤석산/₩10,000
- 한국 현대 소설사론 정호용/₩13,000
- 한국 현대시의 지평과 심층 김완하/₩15,000
- 전영택전집 표인복/(6冊) ₩100,000
- 일제말기 소설연구 신희교/₩10,000
- 도개비세계/김종대/₩12,000
- 고소설연구 2 광정식 외/₩15,000
- 고시조선책/성낙은/₩18,000
- 民謠 詩學 研究 左惠景著 / ₩15,000
- 시립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최재남 / ₩15,000
- 譯註古典小說太平廣記作品選 윤하병/₩17,000
- 조선시대 소설사 연구 주대현/₩10,000
- 주해정구아담(1·II·III) 최웅/(3冊) ₩60,000
- 韓國 古小說史의 視角. 정규복 외/₩35,000
- 韓國詩歌의 通時的 研究. 조재훈 저/₩30,000
- 韓國 翰林詩 評釋. 김창규 / ₩40,000
- 한국 고전극 연구 한옥근 / ₩11,000
- 한국 판소리 사설 형성연구 박관수/₩12,000
- 역대 한국인 편저서 목록 황충기/₩38,000
- 중국조선어문 홍윤표해제/9冊/₩400,000
- 한국 기행문학 작품연구 최강현/₩30,000
- 기행기사 자료선집 최강현/₩17,000
- 금강산문학 자료선집 노규호/₩12,000
- 해동가요에 관한 연구 황충기/₩18,000
- 한국의도교사상과문학교육의 연구 / 박삼서/₩15,000
- 개화기 한국기독교 민족교육의 연구/ 한규원/₩17,000
- 한국 여성기사 연구 서영숙/₩13,000
- 고시조 주석 사전

- 박용식, 황충기/₩25,000
- 한국암흑기신문사설자료총서 편집부/12冊, ₩840,000
- 한국 현대 소설이론 자료집 전기철외/78冊, 3,600,000
- 한국 현대 시이론 자료집 윤정용외/48冊,2,100,000
- 근대 신문문에 자료집성 편집부/10冊, 600,000
-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고영진/₩12,000
- 경어법과 국어교육연구 서덕현 / ₩13,000
-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노대규/₩13,000
- 저녁빛 머무는 고향 강재식/₩4,000
- 조선족동포시인 대표작선집 황송문/₩18,000
- 물빛으로 살고싶다 리상각/₩4,000

### 歷史學의 단행본

- 조선후기 장시연구 김대길/₩12,000
- 고려시대 성리학 수용 연구 이원명/₩13,000
- 재소환인의항일투쟁과수난사 박 환/₩10,000
- 이봉창의사의 항일 투쟁 이현희/₩12,000
- 역사와 회고 김성준/₩30,000
- 중국과 동아시아세계 조영록외/₩12,000
- 죽당 이현희 한국사학논총 논총간행위원회/₩70,000
- 민족운동사연구14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10,000
- 식민지시대재일조선인운동연구 김인덕/₩13,000
- 원호의 생애와 사상 황영선/₩15,000
- 한국법제사 이정규 / ₩25,000
- 고려시대의 귀화인 연구 박옥걸 / ₩10,000
- 고려 법제사 연구 신호용/₩15,000
- 조선후기 당쟁 연구 이희환/₩15,000
- 일제하 법령집람 편집부/8冊, ₩420,000
- 한국 개화기 사료집성 편집부/6冊, 250,000
- 한국 지배 정책 사료집 외무성/42冊, 2,550,000
- 식민지시대민족운동사자료집 김인덕편/7冊, 250,000

### 국학자료원/도서출판세미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8-7 정우 B/D 402호  
전화/2727-949, 2917-948  
팩스/2911-628